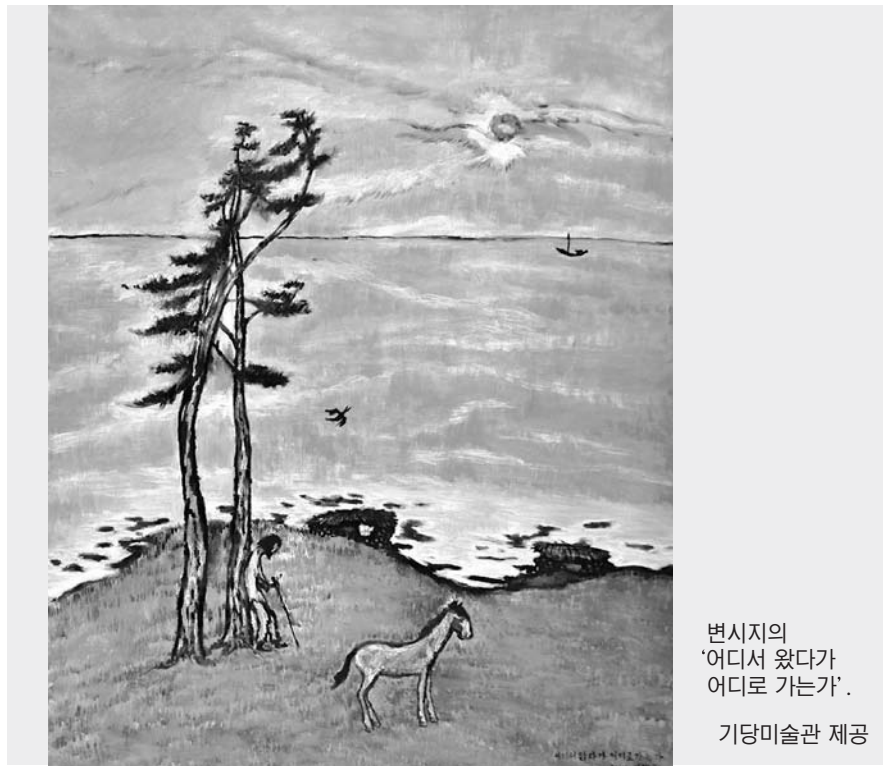


# 황토색 '제주화' 낳은 철학적 물음

변시지 탄생 100주년 기념 서귀포 기당미술관 특별전 미공개 작품 20여 점 포함 조형 언어 탄생 과정 주목 10-11월엔 서울 순회 전시

2026년은 제주 출신 변시지(1926~2013) 화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변시지 상설 전시실을 둔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 회고전을 준비했다. 이달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어지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황토빛 사유, 존재의 바람' 전이다.

올해 변시지 탄생 100주년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전시엔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20여 점을 포함한 회화 60점과 아카이브 소장품이 나온다. 아트시지재단이 소장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1982) 등 삶과 존재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변시지만의 조형 언어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구성했다. 일본 유학기와 서울 시절 작품, 귀향 이후 탄생한 대표작 등을 따라가는 동안 작가가 생전에 품었을 오랜 철학적 고민들이 쌓이며 황토색 바탕에 먹색을 사용한 조형 기법이 탄생했음



변시지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기당미술관 제공

을 살필 수 있다. 유품인 세 발의 자, 독백 영상을 활용한 '사유의 방',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 출판작 '나무'(1997)와 '이대로 가는 길'(2006) 등을 모은 공간도 따로 꾸민다. 미술관 전관을 특별전으로 채우면서 기존 전시장 내부도 바뀔 예정이다. 기당미술관 본래의 건축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 정비가 이뤄진다. 유료.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미술관 누리집 참고.

기당미술관 전시가 끝나면 서울로 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K-뮤지엄 지역순회전시 지원 사업'으로 성북구립미술관과 협력해 고려대 박물관에서 10월 13~11월 28일 전시를 갖는다. 성북구 지역은 고인이 대학 출강 등으로 20년 가까이 머물렀던 곳으로 서울 전시에선 '비원과' 활동 시기와 서울 시절 작품을 추가로 소개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김영갑 기증 사진전 전시 작품. 나무, 하늘, 구름을 담은 말년의 작품 중 하나다.

국립제주박물관 제공

# 오랜 기다림 끝 마주한 섬의 풍경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 김영갑 작가 기증 사진 시대별 변화 과정 담아 두모악갤러리 이야기도

"지금은 사라진 제주의 평화와 고요가 내 사진 안에 있다." 그의 에세이에서 따온 문장이 전시장 입구에 놓였다. 1985년 제주 정착 이래 이 땅에서 마주한 사람과 풍경을 카메라로 기억했던 김영갑(1957~2005). 국립제주박물관이 지난 3월 김영갑갤러리두모악에서 기증(본보 3월 26일자 8면)한 9만 8000여 점 중에서 170여 점을 추려 이달 16일부터 기획전전을 연다. '찰나의 영원, 제주를 담다-고(故) 김영갑 작가 기증 사진전'이다. 기증품 중에서 액자 작품을 중심

으로 구성한 전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시대순으로 김영갑의 작품 세계를 돌아본다. 선입견 없이 제주 자연을 느끼길 바랐던 작가의 뜻에 따라 전시 작품에는 제목이나 설명이 없다. '제주인의 삶과 죽음' '오름, 영혼의 안식처' '제주 환상곡' 섹션을 따라 흑백에서 컬러로, 차츰 가로 폭이 커지는 화면 비율로 변화하는 과정을 만날 수 있다. 지금과 다른 어떤 풍경들은 제주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게 한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김영갑갤러리두모악에 대한 이야기도 한 편에 모았다. 방명록, 사진 장비, 야외 정원 영상 등을 통해 두모악에 깃든 정신을 떠올릴 수 있다. 이번 이달 16일부터 기획전전을 연다. '찰나의 영원, 제주를 담다-고(故) 김영갑 작가 기증 사진전'이다. 기증품 중에서 액자 작품을 중심

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태도"를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찍힌 수많은 사진이 쏟아지지만, 오래 바라보게 만들지는 않는다"며 두모악에 걸린 사진들은 "같은 장소를 전혀 다른 삶의 시간의 밀도로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준다고 했다. 전시는 내년 3월 1일까지. 김영갑의 사진이 품은 '시간의 밀도'를 경험했다면 전시실 끄트머리쯤 있는 '오름과 바람의 노래' 영상에서 쉬어 가도 좋겠다. 대형 스크린에 40개의 작품이 펼쳐지는 영상은 우리를 평화와 고요의 순간으로 이끈다. 개막에 앞서 15일 진행된 언론 설명회에서 김동우 국립제주박물관장은 "이 전시를 계기로 삼달리에 있는 김영갑갤러리두모악을 방문하는 분들도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쏙지

###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 작품전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는 이달 16~21일 제주대 미술관 1층 제미갤러리에서 제53회 백록담전을 개최한다. 백록담전은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강사진이 참여하는 정기 작품전이다. 창작·연구 성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예술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올해는 미술학과 교수와 강사 37명이 회화, 한국화, 조소, 디자인 등 여러 빛깔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교수진은 각자의 예술 세계와 창작 철학이 담긴 작품을 통해 동시대 예술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메시지를 전한다.

### 에나르 공예박물관 아카데미

2026 에나르 제주공예박물관 아카데미 강좌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열린다. 일정은 ▷6월 26일=탐라미의 원류, 시간을 넘는 아름다움(김유정) ▷7월 24일=제주의 분묘문화와 석인상(이창훈) ▷8월 28일=손끝에서 피어나는 품격, 제주의 말총공예(전영인) ▷9월 18일=제주민화, 바다를 품다(정병모) ▷10월 30일=우리의 염색 기법인 협철을 활용한 자연 염색(장희순) ▷11월 27일=제주 환경이 만든 문화! 제주인의 삶에 일상을 담은 제주옹기(오창운). 매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박물관 전시실. 문의 772-4280.

### 돌문화 어린이관 예약 폐지

제주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전시관 내 어린이관 주말 사전 예약제를 폐지하고 7월부터 자유 관람으로 변경한다. 이는 개관 1주년(6월 13일)을 맞아 어린이관 관람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 위해 1일 4회차 운영 방식은 유지되고 주중 10명 이상 단체도 기초처럼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한편 돌문화공원은 지난해 설문대할망전시관 어린이관 이용객이 전체 관람객의 20%를 차지하는 등 관람층 다양화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 숲을 이룬 소망의 도자 탐

#### 양형석 서울 개인전 '탐림'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전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모여 돌탑이 되었을 것이다. 제주 양형석 작가가 그런 마음으로 구워낸 도자 조형 작품들로 서울 인사동에 '탐의 숲'을 펼쳐 놓고 있다. 제주도와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의 2026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작가로 이달 10~29일 서울의 제주갤러리(인사아트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인 '탐림(塔林)'이란 이름의 개인전이다.



양형석의 '주령주령과 후루후루'. 제주갤러리 제공

양 작가의 초기 작업에서 도자는 상처 입은 감정을 다독이는 매개였다. 이후 제주라는 정체성에 눈길을 두고 먼 옛날 용암이 흘렀던 거친 현무암의 질감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최근에는 가마속 뜨거운 불길에 의해 갈라지고

터져 나간 흔적까지 작품의 일부로 품어 왔다. 특히 오랜 연구를 통해 현무암을 건축 자재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분 슬러지를 유약 재료로 재활용하고 있다. 이번 전시엔 여러 물성의 도자 탐들이 나왔다. 용기도와 현무암 슬러지를 이용한 '소망의 정원', 색색의 아크릴 색채가 입혀진 '주령주령과 후루후루' 등 수많은 탐들이 나무처럼 전시장을 채우며 숲을 이뤘다. 작가는 제주도 미술대전 대상(2011),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청년작가상(2022), 제주도 제주청년작가상(2022) 수상 경력이 있다. 이번 개인전은 13번째다. 전선희기자

본 광고는 사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섬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 753-5347**

←광양 → 오라퍼출소 터미널 신제주 →  
 한국병원 **소리섬 보청기**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섬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섬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섬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성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균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의 물을 밀어냄  
 공간을 채움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 010-9086-8965**